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8차	일자	2021.09.13.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	11/13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마이크 불량으로 보고 불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축제 '가을엔사과제' 개최
약학대학	불참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대동제 진행 중, 인문대학생대표자회의 10월 6일 확정
자연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통일공대	통일공대 축제 이틀 간 진행, 9월 25일 경경대와 협업 콘텐츠 진행, 공대 학술제 관련 미팅 예정
동아리연합회	특이사항 없음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2학기 개강인사 이벤트 진행 완료, 당첨자 추첨 완료	문화위 가을 축제 업체 입찰 진행 중
일상복지 교외 상권 대상 불법 카메라 탐지 진행 완료	성평위 운동챌린지(3기) 9월 참가자 모집 중, 정혈용품 비대면 이벤트 신청자 모집 중
전략정책 중대중심 이메일 발송 오류 관련 문제 해결 완료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인원 모집 및 OT 진행 완료
회계사무 학생회비 추가납부 및 환불 진행 중	장인위 배리어프리지도 관련 홍보 이벤트 당첨자 추첨 완료, 배리어프리 영화 소개 신청자 모집 예정

3 논의안건

1. 예산자치제 결산 서류 검토 (2차)

- 사유서 및 기타 자료
-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

총: 첫 번째로 미식축구부의 사유서를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다. 검토시간 1분 드리겠다. 미식축구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저 의견 있다.

총: 네

부총: 공 사느라 쓴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총: 다른 의견 있으신지? 라인테이프의 명목도 지원금액에 대한 전용과 나머지 테이프 및 비용에 전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대관 비용에 대해서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과과학대학은 미식축구부 관련해서 공 구매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을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미식축구부의 경우 단순히 예상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결산 내역과 영수증 증빙에 대해서 금액이 상이한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산 자료를 받으신 바는 없는지?

총: 네, 사유서만 전달받았다.

사과.부: 네. 증빙서에는 대관비에 대해서 6만 8천 원으로만 되어 있고 결산 내역에는 34만 원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자료를 가지고는 결산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결산 자료를 다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대관비의 영수증 증빙 때문에 추가 자료를 재요청해야 된다는 것이 사과대 부회장님의 의견이신건지?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추가의견 없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의견 없다.

동연.부:

총: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의 경우에도 공에 대한 사용비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며, 대관비의 경우에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정이 되지만 해당을 증빙하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자연.비: 자연대도 앞서 말씀해주신 경경대 회장님이랑 사과대 부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며, 만약에 그 대관비에 관해서 서류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환불 금액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 만약에 그 내역이 증명이 된다면 환불받아야 될 금액은 공 관련된 구매 비용만 환불받으면 될 것 같다.

간호.정: 간호대 자연대와 의견 같다.

예술.정: 예술대도 의견 같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도 해당 의견 동의한다.

인문.부: 인문대도 동의한다.

총: 대관비 사용과 관련한 영수증 증빙 서류와 실제 지출 내역이 상의한 이유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

록 하겠다. 공 구매 비용에 대해 반환이 필요하다라는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차기 중운위원회의에서 대관비 반환과 관련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한 번에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마케팅 연구회의 사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1분 드리겠다.

부총: 혹시 지금 안전지 스크롤 내려주실 수 있는지?

총: 네

부총: 네

총: 네 마케팅 연구회가 제출해 주신 사유서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마케팅연구회 관련해서 의견 드리자면 저희가 맨 처음에 받았던 어떤 예산 자치제의 그 계획서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상이하긴 하나 예산 자치의 규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그대로 예산 지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부: 인문대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도 사과대 의견에 동의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동의한다.

통공.부: 공대도 사과대 의견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도 동의한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총: 그러면 미사용 금액인 46,250원만 반환받는 것으로 하겠다. 해당 수치는 마케팅 연구회에서 제출해 주신 결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금액이다. 다들 동의하시는지? 네 다음으로 흑룡 동아리가 보내주신 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 가지겠다. 1분 드리겠다. 네, 대표자분들 의견 주시기 바란다. 의견 없으신지?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흑룡 결산 자료에 대해서 추가의견 없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의견 없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 추가 의견 없다.

예술.정: 예술대학 추가의견 없다.

인문.부: 인문대도 추가의견 없다.

자연.비: 자연대도 추가의견 없다.

사범.정: 사범대 추가의견 없다.

통공.부: 공대도 추가의견 없다.

총: 네 흑룡의 결산 자료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예산 자치제 결산 자료와 관련해서 기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다.

2. 확대운영위원회 진행 논의

- 진행 방식 논의
 - 표결 집계 관련 의견 공유
 - 기타 진행 관련 의견 공유
-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

총: 진행방식과 관련된 논의이다. 첫 번째로 진행 방식과 관련한 논의입니다. 표결 집계와 관련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우선 지난 1학기 때 대표자분들이 내주셨던 표결 집계 관련한 의견은 줌 투표를

활용하지 말고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자라는 대표자분들의 피드백이 있었고 또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표결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투표를 종료한 후에 집계할 것을 피드백으로 주셨다. 또한 의결명을 상세하게 기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결 집계와 관련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현재 집행부에서는 줌 또는 webex 내에 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리허설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다. 네 그리고 대표자 회의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이 있다면 플랫폼을 추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채팅방 투표를 진행을 하자라는 등의 간단한 의견을 내 주셔도 괜찮다.

예술.정: 오픈채팅방으로 투표하면 장점이 있는지?

총: 당시에 사과도 회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줌으로 그러니까 줌 내 투표 기능을 활용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보다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할 때 시간이 단축 되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다.

부총: 단과대 대표자회의에서 사용하고 계신 방식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통공.부: 공대 말씀드려도 되는지?

총: 네

통공.부: 저희 단과대에서 사용한 건 아니고 저희 단과대 내에 있는 학부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안전별로 구글폼을 제작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이 방법을 이제 추천을 해줬다. 이렇게 투표하는 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참여자들이 오픈채팅방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답변을 이제 들은 바 있다고 해서 안전별로 구글폼 제작해서 이제 줌 채팅방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저희 공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다. 이상이다.

총: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일단 인문대학은 인문대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표결방식을 채택 하나면 저희는 사실은 줌 투표랑 오픈채팅방 활용 방식을 모두 고민을 해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각각의 줌 경우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카메라가 꺼진 경우에는 저희가 정족수에서 제외를 한다. 이러한 것을 일일이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시간상의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인문대학은 현재 줌 투표랑 오픈채팅방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약간 가장 고전적인 방식인데 저희는 실물 비표를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전부 배부를 한 다음에 그 표결 시 참여자가 그 화면의 실물 비표를 비추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카메라를 끈 인원과 안 끈 인원 자체가 명확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줌 정확한 표결이 가장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오늘도 표결 방식을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이 방식을 제안 드리려고 갖고는 왔으나 오늘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팔이 아파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조금 참으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

총: 우선 다른 의견까지 다 받은 후에 실물 비표를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그를 통해 이제 거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은 단학대회에서 오픈채팅방을 활용하고 있고 집행부 2인이 카메라를 켜진 인원과 투표한 인원을 대조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예술대 회장님께서 줌 투표에 비해서 오픈 채팅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쭙보셨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줌 투표의 경우에는 저는 전학대회에서 하는 투표는 최대한 참여하는 학우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명의 인원이 투표를 했는지 등이 바로바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줌투표는 사실상 호스트에게는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참여하는 인원의 입장에서는 비율로만 뜬다. 찬성이 30%다 그리고 반대가 70%다 이런 식으로 비율로만 떠서 공개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픈 채팅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아까 총학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채팅이 줌투표보다 의결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의견 드렸던 거 맞다.

간호.정: 확대운영위원회인 만큼 정확한 의결 표 계산이라면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수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일 것 같고 확운위 정도의 인원이라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거수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린다.

총: 추가의견 없으시면 온라인 비표를 활용한 표결 방식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거수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단순히 손을 활용해서 거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물 비표를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그 실물 기표만을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인문.정: 저희가 옛날에 거수를 고민을 했었는데 거수를 하면 사람이 손을 드는 게 각각 제각각이라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실물 비표를 이미지로 사전에 제작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비추면 되는 것이라 좀 더 명확하게 집행부들이 보시기에 딱 편하게 딱 나온다. 그래서 비표를 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총: 저는 이 비표를 온라인으로 배포를 해드리면 그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프린트해서 그것만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휴대전화에 끼워 넣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비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인문대 회장님의 의견이신지?

인문.정: 제가 저희가 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띄우든 어쨌든 이 이미지 자체는 제작한 거니까 다 표시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꼭 출력을 안 해도 어쨌든 총학생회에서 만든 이미지라는게 증명이 되면 어차피 이미지가 다 똑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총: 거수 방식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종합적인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간호.정: 비표에 대해서 더 어떤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총: 예를 들어서 비표를 통한 표결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거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일 것이다. 이런 동의와 반대 의견을 내주시면 된다. 아직 리허설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표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거수를 진행했을 때 우려되는 방향도 반드시 존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다.

인문.정: 어쨌든 총학생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겠지만 인문대 학생대표자 회의를 이제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부분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집계 자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그레도 몇 분 정도는 비표를 들고 계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자분이 계속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거나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저희 인학대회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느낀 문제점은 이거 딱 하나였는데 확대운영위원회는 더 많은 학우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좀 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러한 의견을 드린 것 자체가 이게 100% 완벽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지금 좀 기능의 경우 발표자 외에 갤러리 순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회분들 리허설을 진행하실 때 각각을 담당자분들께서 그 화면들을 순서 배열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신다면 집계할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화면이 잘 보인다면 핸드폰으로 비표를 대신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표를 드는 집계시간 동안 비표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된다고 공지가 명확하게 돼야 할 것 같으며 중간에 비표가 내릴 경우 그거를 기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냥 비표를 다시 든다면 ok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술.정: 그런데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실물 비표랑 휴대폰 이미지랑 둘 다 활용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 네, 좋은 의견에 감사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리허설을 해보고 비표를 활용한 거수 방식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 표결 집계 방식은 총학생회에서 리허설을 하고 그 결과

를 대표자분들께 공유해드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각 방식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끔 집행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고 그 과정이 완료가 된다면 의결을 통해서 표결방식을 확정짓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기타 진행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궁금한 것이 있는데 통과안건을 왜 의결하는지 혹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통과 안건은 말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는 안건인데 매번 의결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총: 통과안건을 꼭 의결로서 처리를 해야 한다 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통과안건이 회의에 전반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를 이루고자 의결을 진행했던 것이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왜냐하면 그 통과 안건에 대해서도 대표자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거나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다른 대표자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의결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확대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기타 안건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논의안건 3번으로 넘어가겠다.

사과.정: 죄송한데 사과대 질의 있는데 단위에서 나온 의견 질의였는데 혹시 1학기 때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관련해서 학생회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2학기 때 개정 예정이실지 여쭙보고 싶다.

총: 당시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관련해서 대표자분들의 질문과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사과.정: 네. 근데 전학대회에서 대표자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원래 전학대회 안건 상정 과정에서 총학생회 내부에 위원회와 협의를 이루지 못했어서 2학기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던 걸로 기억한다.

총: 네. 우선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하위원회의 전반적인 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총회 때부터 이런 제기되어 왔던 성평등위원회와 장애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만 개정할 계획이다. 근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고 또 조만간에 성평등위원장과 장애인권위원장 회장단 간의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정안으로 발의를 할 계획이었다.

사과.정: 네, 확인했다. 답변 감사하다.

인문.정: 혹시 그럼 바로 논의안건 3번으로 넘어간 것인지?

총: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다.

3. 2학기 회칙 및 세칙 개정 논의

- 단위별 개정 제안 공유
 - 차기 회의에서 이어서 논의
 - : 논의 결과에 따른 가안 공유 예정
-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

총: 총학생회 회칙과 선거시행세칙 개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본차 회의에서 대표자분들의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합하고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이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혹시 회칙 세부 개정안에 대해 말씀해주실 대표자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회칙개정과 관련해서 아까 사회과학대학 회장님과 비슷한 의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일단 인문대학은 아직 선거 시행 세칙은 검토하지 못해서 그 관련된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총학생회 회칙의 경우는 단 한 부분 정도가 수정이나 새로 회칙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바로 아까 말이 나왔던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다. 일단 인문대학은 각 위원회와 특별자치기구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때 분리할 때, 특별자치기구를 제8조에 있는 특별기구 조항을 보강하든가, 아니면 신설 조항으로 특별자치기구를 넣자라는 생각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대학

은 문화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위원회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평등위원회나 장애인권위원회와 같이 인권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는 특별자치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생회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학생회 산하에 대응기구가 존재한다면 그 기구가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권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는 독립적인 위치를 가진 특별자치기구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별자치기구 수립이 만약에 결정이 되다면 중앙감사위원회도 부칙이 아니라 특별자치기구도 편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총: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인문.정: 죄송한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인문대학의 생각은 그렇고, 총학생회장님께서 성평등위원장님과 장애인권위원장님과 이야기해보신다고 하셨으니 그 이야기도 되는 대로 빨리 중앙운영위원회에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간호.정: 간호대는 현재까지 회칙이나 세칙 개정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고 내일 개정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서 차기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추가의견 없으신지? 아직 단운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차기 중운위 회의 때 이어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논의안건 4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지? 네, 논의안건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4. 중앙감사위원회 관련 논의

- 지난 인준 의결 결과에 대한 검토
- 지원자 질의 및 답변 가안 공유
- 관련 논의 진행
- 중감위 방향성에 대한 의견 공유
-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

총: 우선 중앙감사위원장 선발과 관련해서 지원자분께서 중운위에 질의하신 게 있다. 질의 내용은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중운위 공지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총학생회장단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안으로 작성을 했다. 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고, 그 가안에 대해 피드백이 없으면 지원자분께 답변 전달하도록 하겠다. 답변에 대한 피드백 주시기 바란다. 피드백 없는 것인지? 피드백이 없다면 피드백이 없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지원자께서 제언을 해주셨는데, 제언에 대한 답변이 따로 없는 이유는 지원자분이 보내주신 제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따로 답변을 작성하지 않았다.

부총: 제가 조금 전에 제언에 담긴 표결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성공을 했다. 각 지원자별로 찬반을 매긴 후에 찬성이 과반된 사람들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진행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무후무한 방식이고 답변할 필요가 따로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제외했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총학생회장님과 부총학생회장님이 써주신 답변에 크게 피드백 드릴 것은 없고, 마지막 문단으로 모든 답변이 되는 것 같아 큰 피드백 없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답변에 대한 추가의견 없다.

동연.부: 동아리 연합회도 추가의견 없다.

사과.정: 사과대도 추가의견 없다.

간호.정: 간호대 피드백 별도로 없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경로로 받으셨는지?

부총: 제가 일전에 개인 연락처로 면접 일정 등을 공유 드렸는데 제 번호로 왔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 피드백 없다.

자연.비: 자연대 추가 피드백 없다.

통공.부: 공대 피드백 없다.

간호.정: 추가 질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누구의 답변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것인지?

총: 중앙운영위원회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운위에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중운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간호.정: 그럼 부총학생회장님께서 그냥 전달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부총: 네.

간호.정: 알겠다.

총: 별다른 피드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답변서 발송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중감위 방향성에 대한 의견 공유인데, 일전에 합의가 된 대로 중앙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안건을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해서 많은 대표자분들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 말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다.

부총: 저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안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회칙으로 중감위 역할을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그 역할을 과대하게 인식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학운위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중감위의 역할이나 영역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부: 사과대 의견은 아니고 질의가 있는데, 원래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상 10월 첫 평일에 다음 대 모집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저희 학운위가 그 이후 일정한 것 같아서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한 따로 의결이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을지?

총: 네, 저도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최초 모집은 1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 차기 중감위원장은 확대운영위원회가 종료된 후에 선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정립된 중감위의 방향성은 차기 중감위원장께 전달해드리면 되겠다. 그까지가 중운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답변이 되었을지? 저의 사건이라서.

사과.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총: 확대운영위원회가 10월 8일에 열린다. 그런데 중감위 회칙 제20조 6항을 보면 최초 모집은 15일간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기 중감위원장은 확대운영위원회가 종료된 후에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중운위가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과.부: 네, 답변 이해했다. 감사하다.

부총: 이런 경우가 있다. 학운위에서 다 같이 중감위를 없애자고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의 회칙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결론이 만약에 폐지라던가 아니면 단체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진행하던 모집을 폐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총: 네, 그 정도 선으로 안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4 기타안건

* 상정되지 않은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진행

총: 기타 안건이다. 우선 첫 번째로 다음 주 월요일은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의견이 상반된다면 투표를 진행을 해서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운위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의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추석 전날이니까 다른 평일로 날짜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추석 전날이라도 우리는 학생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자에게 휴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 본다.

간호.정: 간호대 상관은 없으나 월요일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시회의를...

총: 그렇다, 임시회의로 진행을 해야 한다. 어차피 진행을 해야한다 언제든지.

간호:정: 네, 동의하고 그냥 바로 투표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총: 투표 진행을 할지?

간호:정: 지금 올리시는지?

총: 아니다. 회의 끝나고 올린다.

간호:정: 네, 그러면 회의 끝나고...

총: 단위별 한 표씩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간호:정: 바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바로 올려드리겠다. 두 번째로 재정정보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공문을 재송부한 바가 있는데 지금 기획처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기획처의 입장을 전달받지 않을까 싶은데, 전달을 받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서 안건으로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지?

사과:정: 재정정보 협의체와 관련해서 저희 단위의 의견이 있어서 혹시 전달 지금 드려도 괜찮을지?

총: 네.

사과:정: 저희 우선 첫 번째로는 재정정보 관련 입장문하고 21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의 데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해당 안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정정보 관련 입장문이 1학기 전학대회 의결 사항이고 9월인 지금까지 딜레이가 된 만큼 협의체 개설과 입장문 작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단위 의견으로는 늦어도 2학기 학운위 전에는 입장문 작성 및 발행을 끝내고 학운위 통해서 해당 안을 공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운위가 기획처와 함께 협의체를 개설하고 결국 재정정보 관련 입장문에 학생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운위에 책임소재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학교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재정 상황이 이렇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이 발행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재정정보 공개 관련해서 중앙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학우분들에게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 단위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결렬도 하나의 선택지로 두고 협의체에 임했으면 좋겠다. 해당 입장문이 중운위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처의 의견대로 끌려갈 필요 없이 협의체를 결렬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단위 의견은 이 정도이고 다음 주에 협의체 관련해서 논의안건이 상정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다.

총: 네. 추가의견 없으신 걸로 이해하고, 부총님이 손을 드셨다.

부총: 원래 지금 예산부서 혹은 학생부서에서 지금 신입생 예산사용과 관련해서 확정된 계획과 현황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원래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으나 지난번과 동일하게 개별 연락해서 현황을 여쭙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부 단위가 예를 들자면 총학생회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의견을 단위의 교학지원팀, 내지 집행부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 사실과 다르고 예산부서가 지금 단과대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학지원팀이랑 상의를 하는 전 과정을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혹여 교학지원팀에서 사실과 달리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협의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 이상이다.

총: 그리고 단대별로 예산사용을 다르게, 상이하게 한다는 것이 중운위에서 합의가 되었고 해서 새터 관련 예산사용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단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저희는 기획처와 학생처에 중운위의 의견을 다 전달했고 총학생회장단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는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 네, 다음으로 학사정기협의체 관련 안건인데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학사정기협의체 공문을 발행을 했다. 그런데 안성캠에서 굉장히 늦게 공문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도 공문을 송부했다라고 한다. 학사정기협의체에서 다루는 안건이 서울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의 참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안성의 공문이 지연됨에 따라 학사정기협의체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일정 조율되는 대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학제도 개정 관련한 현황인데, 우선 성적반영 비율과 관련해서 학교 본부 내에서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라고 전달받았다. 그리고 레인보우시스템 문제 해결은 재학생의 최종 등록 기간이 완료된 후, 즉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주무부서 논의 진행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주에 사전 신청 제도에 대한 단운위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충분한 유예기간과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무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전달했다.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논의와 질의가 있다면 해주시길 바란다.

간호.정: 간호대 질의 있는데, 혹시 단위요구안과 리더스포럼 관련해서 더 진행사항이 있을지?

총: 단위요구안은 제가 아직 모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리더스포럼 개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조심스럽고, 빠른 시일 내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겠다. 대충 이렇다. 리더스포럼, 연관 2회의 리더스포럼은 2019년만 그렇게 진행을 했고 원래 관례적으로 리더스포럼은 1학기에만 진행을 한다. 그렇기에 2학기에는 굳이 진행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유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질의 있는데, 2분기 간담회에서 받았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논의하고 답변해주시기로 말씀해주셨는데 답변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단위에서 질의가 나와서 여쭙는다. 제가 말씀드린 2분기 간담회는 총학생회 2분기 간담회 사전 질의 말씀드리는 것이다.

부총: 현황을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2분기 간담회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던 항목 중에 사업으로써 이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답변 감사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대자보 관련 시행 세칙과 선거 제도 위원회 관련 시행 세칙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쭙봤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바뀐 점이 있을지?

총: 오늘 확인을 했고,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좀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대표자 의견을 전달했다.

사과.정: 네, 알겠다.

총: 추가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발언해주시길 바란다.

예술.정: 한 가지 있다. 아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OT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예술대학이 지금 소통이 안되는 경우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단과대는 예산사용 교학지원팀이랑 이야기하면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저희가 계속 문의를 했을 때 계속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 이런 걸 계속 전달받아서 저희만 그런지 다른 단과대도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경경.정: 저희는 교학지원팀에서 예산팀에 연락을 취했는데 공문이 와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공문을 준비 중에 있다 라는 예산팀에서 답변이 와서 공문 대기 중에 있으며 내일 다시 찾아가서 연락드릴 예정이다.

간호.정: 간호대는 교지팀과 지속적으로 미팅 중에 있고, 기획안 이미 작성 완료해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간호대 교지팀에서는 다 오케이가 되었고, 저희도 최종 예산안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일하고 있고 교지팀 간의 미팅이 거의 끝난 상태이다.

인문.정: 저희도, 인문대학도 현재 교지팀에 내부계획서를 교지팀에 발송을 했고, 교지팀이 내일 중에 예산팀이랑 협의를 한 다음에 알려주시기로 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교지팀이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교지팀과는 논의가 끝난 상태고 예산팀에 넘기는 과정만 지금 진행하면 된다.

사범.정: 사범대학도 현재 기획안 작성 완료해서 교지팀이랑 검토 중에 있고, 검토 완료되면 예산팀에 전달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볼 계획에 있다.

자연.비: 자연대는 현재 계획서 작성 중에 있으며, 저희가 1차적으로 교지팀에 문의를 했을 때 예산팀에 바로 문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산팀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와야지만 진행을 한다는 입장

은 없으셨다. 저희가 기획서를 내면 아마 진행될 것 같다.

경경.정: 이 부분은 저희랑 좀 다른 게 저희는 교지팀 주임님께서 직접 예산팀에 연락을 취했을 때 아직 예산팀 팀장님께서 관련해서 예산팀에 말씀해주신 게 없다고, 따라서 공문을 대기하라고 저희는 전달받은 상태라 공문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은 언제 전달을 받으셨는지, 저희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관련해서 다시 전달을 받은 상태인데 혹시 언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

자연.비: 저희는 그것보다 더 전에 얘기를 들었다. 그때는 그냥 바로 저희 교지팀에서는 따로 공문 얘기는 없으셨고 저는 총학생회장님 그때 전달받은 대로 저희가 기획서를 내고 내용을 교지팀에서 예산팀으로 전달하면은 예산 집행이 진행될 거다라는 사실을 전달했더니 따로 공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저희 교지팀에 문의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다.

경경.정: 저희도 처음에는 기획안을 제출하면 예산팀에서 기획안을 확인하고 예산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교지팀 연락으로 예산팀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 공문을 준비 중이시라고, 공문 대기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지금 공문에 관련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혹시나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

부총: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서 간 소통오류가 좀 있는데, 어쨌든 기획안 작성하고 교지팀과 협의하는 것까지는 이미 가능한 단계이다. 해당 단계마저도 진행이 어려운 단위가 있다고 한다면 일전에 올려드렸던, 저희가 예산팀에 보냈던 공문이 있다. 단위별로 협의한다는 그 공문을 다시 교지팀에게 보여주시고 교지팀에서 다시 사실 파악을 해보시도록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예솔.정: 혹시 그 문서 다시 한 번 공유 가능한지?

부총: 네 알겠다.

예솔.정: 네 감사하다.

총: 추가의견이나 질의 있으신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중운위 38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빠르게 투표해주시길 바란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